

인권강좌·장애체험...장애인 인식 개선 총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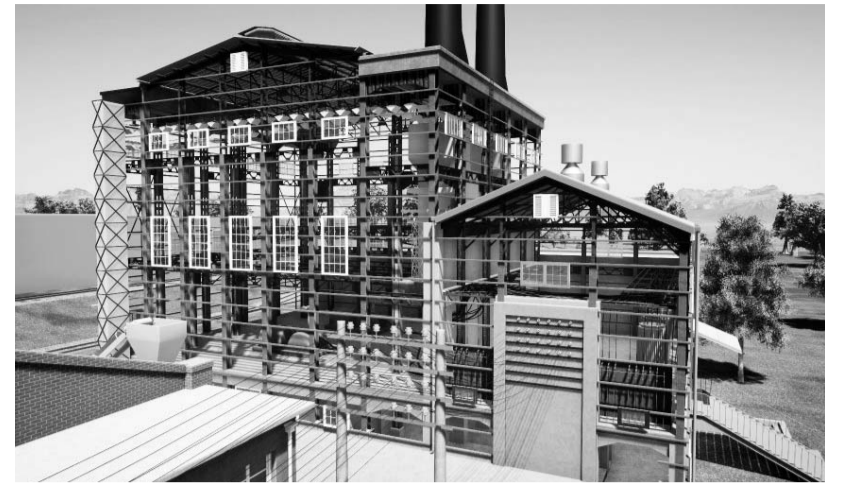
시, 공직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발달장애 인식 개선 과정 추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교육 확대

광주시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없애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시는 그동안 집합교육, 수요인권 강좌, 공무원교육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 복지시설 현장교육, 찾아가는 인권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왔다. 지난 5월 29일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시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도 강화했다. 먼저 현재 공무원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 인식 개선' 교육과정과 더불어 내년부터는 '발달장애 인식 개선' 과정을 추가 개설한다. 발달장애 인식 개선 교육은 '장애 인식 개선' 교육과정과 별도의 과정으로 2차례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다. 또 사례 위주로 진행되던 수요인권강좌의 경우 인권 전문강사를 초청해 '어둠식당 더듬이'를 주제로 장애 체험 방식으로

운영하기도 했다. 10월에는 이례적으로 광주시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장애 인식 개선 교육에 나섰다. 장애인을 최일선에서 만나는 시설 종사자의 장애 인식 개선 및 인권 감수성 함양을 위한 노력도 꾸준히 하고 있다. 광주시는 장애인거주시설 등에 전문 강사단을 파견해 거주시설 종사자 의무교육(8시간),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의무교육(4시간), 장애인시설 이용자 의무교육(4시간) 등을 하고 있다. 또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의 사후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해서도 장애 인식 개선교육을 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해 10월 문을 연 이후 지역민의 인식 개선과 장애인 학대 예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25회, 학대예방교육 19회, 인권교육 57회 등 총 101회에 걸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장애인학대의심사례를 접수받고 이중 학대사례로 판정되면 직접 고발하거나 피해자 고소를 지원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및 인권지킴이단에 대한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자치구,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함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근대건축물 디지털 아카이브' 연구결과 공개

광주시가 일신방직 내 발전소 등 근대건축물 기록보존사업으로 추진한 '2018 광주광역시 근대건축물 디지털 아카이브 사업' 연구결과가 시민에 선 보인다. 시는 지난 3월부터 일신방직 내 발전소와 보일러실1·2, 물탱크의 실측 도면 역사·사회·문화·건축학적 연구결과를 VR·AR영상과 3D애니메이션, 실측도면, 기록보고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이 쉽고 재미있게 근대건축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생 랜드마크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15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와 연계해 31일부터 11월 3까지 시청 1층 시민실에서 열린다. 전시내용은 올해 사업대상인 일신방직 내 발전소와 보일러실1·2, 물탱크의 실측 도면 역사·사회·문화·건축학적 연구결과를 VR·AR영상과 3D애니메이션, 실측도면, 기록보고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이 쉽고 재미있게 근대건축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기업 기술·사업화 지원 '기사창투 한마당' 행사 29일~11월 4일 첨단지구

광주지역 기업의 기술·사업화·창업·투자를 지원하는 유관기관의 네트워크 행사 '2018 기술사업화창업투자한마당(이하 기사창투한마당)'이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첨단지구 등에서 열린다. '기사창투 한마당'은 투자 설명회, 기술포럼, 청년창업 제품 전시 등 기술·사업화·창업·투자 관련 행사를 통칭한 광주 지역만의 특화된 네트워크 행사다.

지난 2016년 광주지역 15개 기관이 공동 기술사업화주간을 설정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는 3회째를 맞아 참여기관이 30곳으로 대폭 확대됐다. 올해는 지역 내 기술사업화 유관 기관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광주연합기술지주회사,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 KDB산업은행 등 30개 기관이 공동 주관하고, 광주시와 과기정통부, 중기벤처부, 전자신문사 공동 후원으로, 첨단지구 등 광주지역 전역에서 기술사업화, 창업, 투자분야별 주요 내용으로 15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29일 오후 이노비즈센터(북구 월출동)에서는 개막식이 열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부처와 지역 기업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하며 기술 금융 활성화 투자약정식, AI 기술과 예술의 만남, 창업기업 제품 전시관 투어 순으로 진행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



송원대 학생들 일일기관사 체험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지난 25일 산학교류협약을 맺은 송원대 철도안전시스템학과 학생 30명을 용산차량기지로 초청, 일일기관사 체험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은 용산차량기지 내 다양한 지하철 시설물을 견학하고 전동차 수동운전을 체험했다. 또 공사 직원들과 함께 '열차 안전운행 캠페인'을 벌였다.

제2대 어린이·청소년의회 본회의 무슨 안전 나왔나

학생 교통비 지원 등 6개안 통과
광주시는 제2대 어린이·청소년의회 제2차 본회의가 27일 오후 광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정당별로 발결된 정책의제 6개 안전이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돼 모두 통과했다. 상정된 안건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광주광역시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개정안 ▲예체능계열 입시 프로그램 개설에 관한 조례 신설안 ▲불법촬영범죄 예방 및 처벌에 대한 조례 신설안 ▲광주광역시 학생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신설안 ▲광주광역시 청소년증 통합에 관한 제안 등이다. 또 효율적인 광주대표 축제 운영, 화장실 청소소 성별 맞춤 및 대안 마련에 대한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시 관계자는 "본회의를 통과한 안건은 시와 교육청 등 관계

기관에 전달돼 검토 후 정책 반영이 결정된다"며 "정책으로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대 어린이·청소년의회는 지난해 11월 만 9세부터 19세 미만 청소년들의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된 22명이 활동하고 있다. 올해 1월 개원해 상임위원회(교육, 자치, 환경복지)를 구성하고, 소속 분야 청소년 정책 발굴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

광주 9개 병·의원 러시아 의료관광 설명회

광주시는 러시아 극동지역 신흥 의료관광시장을 개척하고 의료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광주지역 9개 의료기관 및 광주의료관광지원센터와 함께 지난 23일부터 4일간 '2018 러시아 의료관광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기독교병원, 라벨르의

원, 시엘병원, 아이안과의원, 전남대치과병원, 조선대병원, 조선대치과병원, 청연한방병원, 코엔영의원 등 9개 병·의원, 광주의료관광지원센터가 참여했다. 26일 러시아 하바롭스크에서는 현지 의료인과 보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관광 설명회 및 비즈니스 미팅'을 열어 광

주지역의 우수한 의료서비스와 다양한 의료관광 상품을 소개하고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홍보등 마케팅을 펼쳤다. 광주지역 참가 의료기관과 현지 건강검진센터는 의료교류협력 MOU도 체결했다. 이에 앞서 24일 광주의료관광지원센터와 블라디보스토크 에이전시 간의 의료관광 활성화 업무협약을 맺고, 25일에는 하바롭스크의 국립암센터와 건강검진센터 등 주요 병원을 방문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노란우산공제 가입 소상공인 월 1만씩 1년간 지원

오는 29일부터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하는 광주지역 소상공인에게 월 1만원씩 1년간 지원된다. 시는 28일 "소상공인을 위해 29일부터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에 대한 희망장려금 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이 스스로 퇴직금(공제부금)을 적립해 폐업·노령 등에 따른 생계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공적 공제제도다. 오는 29일 이후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

되며, 지급 대상은 관내 연 매출 2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가입 시 희망장려금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월 1만원(최대 12만원)을 시에서 함께 적립해 준다. 가입자는 5만원~100만원까지 선택해 납부(월납 또는 분기납)하고 공제 사유 발생시(폐업, 사망, 퇴업, 노령 등)에는 공제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다. 또한 연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공제에 대한 압류금지, 복리이자, 무료 상해보험 가입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산구, 구금고 탈락한 농협 반발에 곤혹

최근 구금고 심사에서 1급고 운영기관으로 국민은행이 선정된 광산구가 심사에서 탈락한 농협측의 반발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28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 24일 개최된 광산구 구금고평가심의위원회에서 지역사회부담과 협력사업비를 경쟁사인 농협보다 3배 많은 64억4000만원을 제시한 국민은행이 1급고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 30년간 농협이 독점해왔던 광산구 구금고는 오는 2019년부터 3년간 국민은행이 맡게됐다.

이와 관련, 광산구는 구금고 선정과정에서 평가위원 명단을 비공개하는 등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한 절차를 거치고도 속앓이를 하고 있다. 실제로 농협측은 구금고 유치에 탈락한 다음날 관내 10여명의 회원농협 조합장들을 통해 이성수 부구청장을 면담, 거센 항의를 했다. 또한 농민단체에서도 29일 항의시위를 하기로 한 데 이어, 농협 내부에서도 심사결과 무료 처리가처분 신청 등 법적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승렬 기자 srchoi@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급매

- ✓ 38평, 302호
 - ✓ 사무실 전용, 20층중 3층, 하천방향
 - ✓ 전체 올수리, 대형주차장, 주차2대 무료
 - ✓ 관리비 저렴, 즉시 입주가능
 - ✓ 시세 - 1억 1000만원
 - ✓ 급매 - 6500만원
- (10월 31일까지 이전 조건)

- ✓ 53평, 701호
 - ✓ 사무실/주거겸용, 20층중 7층, 코너
 - ✓ 전체올수리, 대형주차장, 주차3대 무료
 - ✓ 현재 보증금 1000만원에 월 50만원 임대중
 - ✓ 시세 - 1억 5000만원
 - ✓ 급매 - 9000만원
- (10월 31일까지 이전 조건)

문의. 010-6834-7400